

번호: OP-H-002					
제 목	한 농촌지역 성인의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심전도 상 이상 소견의 연관성 The Association betwee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ECG Abnormal Finding at a Korean Rural Community				
저 자 및 소 속	김유미1), 최성용1), 김미경1), 신진호2), 임헌길2), 최보울1)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Kim Yu-Mi1), Choi Sung Yong1), Kim Mi Kyung1), Shin Jin Ho2), Lim Heon Kil2), Choi Bo Youl1) 1) Dept. of Preventive Med.,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 2) Dept. of Internal Med.,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				
분 야	역 학 [뇌심혈관계]	발 표 자	김유미 전공의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한 농촌지역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코호트 구축 연구의 기반 조사를 통해 심전도 이상 소견의 분포를 기술하고, 심혈관계 위험인자와 심전도 상 이상소견의 연관성을 밝힌다.</p> <p>방법: 2002년 8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심혈관 질환 원인 규명을 위한 코호트 구축을 위해 실시된 현지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양평군 지역주민 1,725명 중 20세 이상의 심전도 검사를 수행한 1,68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대일 면접 조사를 통해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결혼 상태 등)과 생활습관요인(흡연, 음주 등)을 조사하고, 표준화된 지침서에 따라 사전 교육된 조사원이 설문 조사와 신체 계측을 하였다. 비만은 신체 계측을 통해 측정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Kg/m²)와 허리엉덩이 둘레비(Waist-Hip ratio)를 통해 측정하였다. 수동 수은혈압계(Baumanometer)를 이용하여 안정된 상태의 혈압을 측정하였고, 공복 상태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지질검사 및 공복시 혈당 검사를 시행하였다.</p> <p>Fukuda Denshi 사의 FCP-2101 기기를 이용하여 표준 12유도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12유도는 표준유도(I, II, III), 사지유도(aVR, aVL, aVF), 흉부유도(V1, V2, V3, V4, V5, V6)으로 구성되며, 심전도 소견은 조사 후 일괄적으로 한 명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판독하였다.</p> <p>체질량 지수에 의한 비만은 대한비만학회의 기준(~23Kg/m², 23Kg/m²~25Kg/m², 25Kg/m²~30Kg/m², 30Kg/m²~)에 의거하여 구분하였고, 복부 비만은 WHO의 기준(male: >0.9, female: >0.85)에 따라 정의하였다. 고혈압은 JNC VI에 의해 구분하였고, ATP III의 지침에 따라 고중성지방혈증(>150mg/dL)과 저고밀도지단백증(male: <40mg/dL, female: <50mg/dL)와 내당능장애를 정의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생활습관요인,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와 심전도 이상 소견에 대해 기술 분석을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생활습관요인에 따른 심혈관계 위험 인자와 심전도 이상소견과의 단변량 분석을 카이제곱검정 및 독립 t-검정을 통해 수행하였다.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심전도 상 이상 소견의 오즈비를 구하였다. SAS 9.1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p> <p>결과: 조사 대상 1,688명 중 여성이 996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57.68±12.98세, 여성은 57.79±13.15세였다(p-value=0.28). 조사 대상의 심전도 판독 소견은 정상이 793명(46.98%)였고, 비특이적 ST 분절의 변화와 단순빈맥과 서맥을 포함하는 비특이적 변화가 683명(40.46%)를 차지하였다. 완전우각차단, 불완전우각차단 등을 포함하는 전도장애가 94명(5.57%), 좌심실비대가 30명(1.78%), 심방조기수축,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 소견이 48명(2.84%)이었으며, 심근경색과 허혈의 소견은 18명(1.07%)로 나타났다. 심전도 상 주요 이상소견이 있는 사람들의 복부비만율(62.6%)은 정상군의 57.94%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p=0.24), 두 군의 고혈압 유병률은 43.68%, 34.18%이었고(p=0.0024), 내당능장애는 15.26%과 14.46%이었으며(p=0.74), 고중성지방혈증은 36.32%과 34.05%이었다(p=0.57). 심전도를 구조적으로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추가분석 시행 예정이다.</p>					